

경자년 입춘불공 원만 회향

새로운 봄과 희망찬 미래를 위한 간절한 기도

- 봉원사 2020년 입춘불공 -



2020년 경자년 2월 4일(불기 2564년 음력 1월 11일) 화요일 10시에 봉원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불공이 봉행되었다. 큰 추위가 없었던 금년 겨울이지만 입춘 당일에 갑작스레 찾아온 영하의 추위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움츠러들게 하였다. 그러나 봉원사를 찾은 5백여 명의 신도들의 뜨거운 신심은 대웅전 앞마당을 열기로 가득차게 만들었다.

봉원사 대중스님들의 집전으로 불공이 시작되었다. 영산재 의식으로 진행된 불공은 신중작법을 시작으로 천수경, 복청계, 천수바라, 도량계, 거불, 대례청, 축원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신도들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을 앞에 놓고 정성을 다해 불공을 드렸다. 대중스님들은 매서운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입춘불공을 이끌어 주었다.

입춘은 24절기 중 첫 번째로 봄의 시작과 함께 희망을 품은 인간의 새로운 출발을 상징한다. 서양에서는 1월 1일을 한 해의 시작이라고 말하지만,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 한겨울의 양력 설날을 한 해의 시작이라 말하는 것은 적당치 않을 것이다. 절기를 기준으로 보면 추운 겨울이 가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시작되는 입춘이야말로 한 해의 시작이라 할 수 있겠다.

이날은 여러가지 민속행사가 행해진다. 그 중 하나가 입춘첩(立春帖)을 써 붙이는 일이다. 이것을 춘축(春祝) 또는 입춘축(立春祝)이라고도 하는데, 각 가정에서 대문의 기둥이나 대들보·천장 등에 좋은 뜻의 글귀를 써서 붙이는 것을 말한다. '입춘대길(立春大吉) 건양다경(建陽多慶)'은 '봄이 시작되니 크게 길하고 경사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길 기원한다'는 의미로, '소지황금출(掃地黃金出) 개문만복래(開門萬福來)'는 '땅을 쓸면 황금이 생기고 문을 열면 만복이 온다'는 의미로 많이 사용된 입춘첩이다. 이 모두는 따뜻한 봄이 오기를 희망하고 한 해 동안 길한 운과 경사스러움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

또한 입춘 전날 밤에는 이웃을 위해 좋은 일을 해야 일년 내내 액(厄)을 면한다고 했다. 적선공덕행(積善功德行)이 바로 그것인데, 예를 들면, 밤중에 남몰래 사람들이 편히 넷물을 건널 수 있도록 징검다리를 놓는다든지, 불편한 길을 곱게 다듬어 놓거나 거지들의 움막 앞에 밤 한 솔 지어 갖다 놓는 등 아무도 모르게 선행을 베푸는 일들을 행했다고 한다. 이렇듯 입춘은 자기가 얻은 공덕과 이익을 다른 이에게 베풀어 주며 중생을 구제하는 불교의 '이타심(利他心)'과 맥을 같이하는 날임을 알 수 있다.

민속전통과 함께 봉원사에서는 부처님의 가피(加被) 속에서 새로 맞이하는 해의 재액을 소멸하고 만사형통을 발원하기 위해 매년 입춘기도를 봉행하고 있다. 특히 삼재(三災)가 모든 일에 장애를 일으킨다 하여 이를 막기 위해 삼재불공을 올린다. 올해의 삼재로는 소(丑), 뱀(巳), 닭(酉)띠가 이에 해당된다.

10시에 시작된 불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열기를 더해갔다. 그 열기와 함께 스님들의 나비춤과 바라춤, 법고가 진행될 때마다 신도들의 신심은 더욱 고조되었으며, 새봄을 준비하는 희망찬 발걸음을 내딛는 마음가짐이 엿보였다.

행사 마지막 축원 기도에 이어 주지 운봉 스님의 "추운 날씨에도 입춘불공 기도를 정성스럽게 모신 대중스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신도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경자년 한 해는 예년보다 더욱더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그리고 뜻하시는바 모든 것을 소원성취하시길 바라며, 무탈하게 지내시기를 기원합니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경자년 입춘불공은 원만히 봉행되었다.

불기 2564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행사 안내

귀의 삼보하옵고, 불교 최대의 명절인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불자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옵기를 삼보전에 축원드립니다.

더불어 부처님의 크나큰 은혜가 이 땅에 내려져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금년에도 봉원사에서는 부처님오신날(양력 4월 30일)을 맞이하여 아래와 같이 봉축행사를 봉행합니다. 신도님들께서는 부처님오신날 봉축법회와 관등법회 등에 무루 동참하시어 온 세상을 불국정토로 가꾸어 우리 모두 부처님의 은혜와 공덕으로 소원성취 하시기를 삼보전에 기원합니다.

아 래

- 일 시 : 2020년 4월 30일(음력 4월 8일) 목요일 (오전 7시부터 12시까지 매시 정각 축원)
- 장 소 : 봉원사 도량
- 문 의 : 각 화주스님 및 종무소(02-392-3007~8)
- 등안내(수시접수)
 - 대웅전 1년 가족등 : 50만원
 - 설법전 1년 가족등 : 10만원
 - 명부전 1년 영가등 : 10만원
 - 4·8 마당 가족등·영가등 : 5만원

※ 사전에 화주스님께 미리 연락하여 신청하시면 혼잡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봉 원 사

'구전심수(口傳心授)의 자세로 꾸준한 노력이 필요'

- 옥천범음대학 제23회 수료 및 졸업식 원만 회향 -

옥천범음대학 제23회 수료 및 졸업식
일시 : 2020년 2월 14일 (음 1월 21일) 금요일 오전 11시 설법전



시길 바랍니다. 도량을 걸으시며 항상 공부하셨던 송암 스님처럼 공부하는 과정을 계승해서 잊지 말고 잘 지내고 있다가 훗날 후학들에게 전승해 줘야 될 책임을 갖고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반 백년전 1969년, 뜻있는 분들이 힘을 모아 '옥천범음회'를 설립한 이후로 '옥천범음대학'으로 발전해서 오늘 영광스러운 23회 졸업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밥 먹는 시간과 자는 시간을 빼놓고 항상 잊지 않고 공부를 했다는 선대 스님들을 따라 잊지 말고 열심히 하셔서 훌륭한 어산범패의 대가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하셨다.

지난 2월 14일(음력 1월 21일) 금요일, 봉원사 설법전에서는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학장 현성 스님)의 제23회 수료 및 졸업식이 교학처장 향천 스님의 사회로 원만하게 봉행되었다.

이날 졸업식에는 국가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유자인 구해 스님을 비롯하여 봉원사 부주지이며 옥천범음대학장인 현성 스님, 전수교육조교 일운 스님, 교수 만춘 스님, 교수 기봉 스님, 교수 인각 스님, 봉원사 교무법수 스님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 주었다.

사홍서원, 경과보고, 수상식, 축사, 졸업생들의 교수님 꽃다발 증정식 등의 순서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졸업생 및 축하 하객 50여 명이 참석했다.

범음대학장 현성 스님은 학생들에게 졸업 및 수료증서, 이어 상주권공과, 각배과 등 각 학과 우수생들에게 상장과 부상,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이어진 학장 현성 스님은 인사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시간이 보람있고 즐거웠습니다."며, "가르치는 입장에서 오히려 제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양산, 장흥 등을 비롯해 평택, 흥천, 장호원 등 원근을 가리지 않고 오셔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옆에 구해 스님을 비롯한 범패의 대가 큰 스님들이 계신데도 저는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의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은 졸업과 동시에 영산회보존회 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큰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앞으로도 영산재보존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하시는 불

사마다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원만히 모두 성취될 수 있기를 부처님전에 기원 드립니다."라고 말씀하셨다. 이어, "졸업으로 인연을 끊지 마시고 새로운 인연을 맺어 청강도 들어오시고 열심히 수학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라고 인사말을 맺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유자 구해 스님은 축사 및 격려사에서 "졸업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절반의 시작이 다시 시작되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어산범패 교육은 4년으로는 부족합니다. 상주권공 I·II, 각배, 영산 외에도 안채비 겹채비 등의 많은 과목이 있습니다. 불교음악 어산범패를 선택하신 만큼 한 곡을 하더라도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그대로 여러번을 수없이 반복해서 익히시기 바랍니다. '구전심수(口傳心授)', '입으로부터 전해져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자세로 항상 공부하

상주권공 I·II, 각배반 수료생 49명, 영산반 15명의 졸업생을 배출해 낸 옥천범음대학은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의 올바른 정신을 계승하며, '정통' 범음·범패 교육을 위한 문화재청에서 인정한 교육기관이다. 또한 영산재의 올바른 계승과 전통을 이어가고자 하는 봉원사만의 '영산재 정신'을 체득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도 하다.

옥천범음대학 수료생 및 졸업생들은 이제 바야흐로 한국 불교문화의 정수인 영산재의 정통성 있는 계승자로서 첫걸음을 내딛게 되며, 앞으로 연수회 등을 통한 지속적인 재교육과 각종 행사의 참여를 통해 기량을 키워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자신의 기량연마를 넘어 훗날 현재의 자신과 같은 우수한 제자들을 키워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옥천범음대학

인류무형문화유산 유네스코(UNESCO)

2020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옥천범음대학은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부설기관으로써 1968년 옥천범음회를 최초로 시작되었습니다. 1973년 국가무형문화재 제 50호 "범패"로 지정, 1987년 "영산재" 보존회로 단체 지정되었습니다. 2009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불교의식의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 인재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응시자격

- ▷ 입학과정 : 승려 및 포교사, 법사, 재가불자, 관련학과 (음악, 무용과) 등 일반인
- ▷ 편입과정 : 동일계열 상주권공 수료자
- ▷ 제출서류 :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반명함판 사진 3매
· 승적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해당자) 1부
-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교 행정처 및 홈페이지
- ▷ 특 전
· 출가승려(법계 미품수자)로서 학사변동에 이상 없을 경우 4년 과정을 정상수료시 태고종승려에 한하여 중덕법계 품수 응시자격을 부여.
· 성적우수자에게 각종 장학혜택 부여하고, 국내외 공연시 우선 선발.

▷ 신입 및 수료과정

모 집	교수내용	교수진	요 일	모집인원
1학년 [상주권공 I]	불공 / 시식 / 예불 / 상주권공 및 작법	마일운 스님	월	30명
2학년 [상주권공 II]	시련 / 대령 / 관육 및 상주권공재의식 시연	김태호 스님	수	편입생 약간명
3학년 [각배]	각배과정	조인각 스님	목	
4학년 [영산]	영산과정	이기봉 스님	금	★
불교의식 이론	불교의식(이론) 영산재의 행위전승학습	심만춘 스님	화	

※ 졸업자에게는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 회원자격을 부여하고 기능이 인정되면 전수생으로 지정

옥천범음대학 제23회 졸업생 명단

- | | |
|---------|---------|
| 안정호(법인) | 이주영(지홍) |
| 김화숙(성문) | 김병효(현경) |
| 이영래(도산) | 윤순희(도경) |
| 이영희(선지) | 조연희(일인) |
| 천윤성(윤성) | 오을용(현오) |
| 홍종덕(도현) | 정세철(성우) |
| 손민임(보림) | 김상기(진철) |
| 박정극(성운) | |

인등은 참다운 공덕행

- 경자년 인등기도 입재 법회 원만 회향 -



2월 17일(음력 1월 24일) 봉원사에서는 어두움을 없애고 지혜의 광명을 드높이 밝혀 무량복덕(無量福德)을 누리기를 기원하는 인등(引燈)법회가 봉행되었다. 삼천 불전에서 봉행된 인등법회는 봉원사 대중스님들과 300여 명의 신도들이 운집한 가운데 장엄하게 진행되었다. 내리는 눈과 함께 영하의 찬 바람이 사찰을 감싸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신도들은 시종일관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깊은 신심으로 법회에 임했다.

법회는 신도들의 촛불을 밝히는 의식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공양을 올리며 진행된 법회는 한 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이어 설법전에서 법사 만춘 스님의 법문이 계속되었다.

인등은 자성본불(自性本佛·自性 : 본디부터 갖추고 있는 불성(佛性))의 등으로 상징된다. 365일 매일 24시간, 인등의 불은 꺼지지 않는다. 인등에 불을 항상 밝히는 것은 탐진치(貪瞋痴) 삼독(三毒 :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으로 가려진 자신의 불성을 밝히도록 하는데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 또한 인등은 각자 자신의 소원을 담아 불을 밝힌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인간의 모든 재앙은 어둠 속에서 일어난다. 진리에 대한 어둠, 인과에 대한 어둠으로 인해 사람들은 온갖 악업(惡業)을 짓게 된다. 이 악업들로 인해 간절히 바라는 소

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불행이 찾아온다. 그러나 등 공양으로 마음에 지혜의 등불을 밝히면 불행과 재앙은 물러가고 어느덧 장애는 사라져 소원이 이루어진다.

화엄경에서는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 중 가장 으뜸이 등 공양'이라고 했으며, '믿음을 심지로 삼고, 자비를 기쁨으로 삼으며 생각을 그릇으로 하고 공덕을 빛으로 하여 탐진치 삼독을 없앤다'라고 전해지며, 대열반경에는 '중생은 번뇌의 어두움 때문에 지혜를 잃는데 비해, 여래는 방편으로 지혜의 등을 켜니 모든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한다'고 하였다. 또한 방등경에 '보살은 부처님 앞에 등 공양을 하였으므로 천안통(天眼通)을 얻었다' 하였고 '등불보시는 청정한 불안(佛眼)을 얻는다'고 하였다. 천안(天眼)과 불안은 다른 눈이 아니라 지혜를 얻는 눈이다. 그러므로 등 공양은 부처님의 지혜와 가르침으로



중생의 어리석음과 어둠을 밝히는 행위인 것이다.

이와같이 인등은 부처님 전에 불을 밝히고 기도를 함으로써 모든 중생들의 번뇌와 삼독으로 인한 불성보배를 보지 못함을 몰아내고 광명과 지혜를 얻기를 기원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개인의 소원만을 이루고자 함이 아니라 신도 개개인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어 밝은 세상으로 나아가 많은 중생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해 줄 것을 기원하는 의식이다.

등불은 모름지기 어두운 곳을 비추는 것이다. 무명의 어둠에 가득 차 있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 받는 이웃과 더불어 삼악도(三惡道 : 악인이 죽어서 가는 세 가지의 괴로운 세계, 지옥도, 축생도, 아귀도)의 중생들에게 비록 작지만 내 마음의 등불을 비추어 주는 것이 참다운 공덕이 될 것이다.



제22장 지옥품(地獄品) : 악을 행하면 죄를 받는다

▶ 스스로 마음을 굳게 지키면

如備邊城 中外牢固 自守其心
非法不生 行缺致憂 令墮地獄
여비변성 중외되고 자수기심
비법불생 행결치우 영타지옥

마치 저 국경의 성을 지키되
안과 밖을 튼튼히 하는 것처럼
스스로 그 마음을 굳게 지키면
악한 법이 거기서 싹트지 않네
청정한 행 못 지키면 근심 생기고
마침내 지옥에 떨어지느니

▶ 부끄러워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可羞不羞 非羞反羞
生爲邪見 死墮地獄
가수불수 비수반수
생위사견 사타지옥

부끄러워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끄러워 않을 것을 도리어 부끄러워하면
살아서는 그것이 샅된 소견이 되고
죽어서는 지옥에 떨어지리

▶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可畏不畏 非畏反畏
信向邪見 死墮地獄
가외불외 비외반외
신향사견 사타지옥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도리어 두려워하며
샅된 소견을 함부로 살다가
죽어서는 지옥에 떨어지리

삼진불공(佛供)의 의의



- 부처님과 조사님들께 다공양을 올리는 다례(茶禮)가 대표적 행사이다.
- 삼진날은 용맹정진과 환골탈태를 다지는 명절이다.
- 이 날의 의의를 계승 발전시켜 불가의 명절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

삼월삼진날은 봄을 알리는 우리 고유의 명절이다. 음력 3월 초사흘에 들기 때문에 '삼월삼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3이 겹친다는 뜻으로 중삼(重三)이라고도 한다. 이날은 중구일(重九日)인 9월 9일 날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온다고 하며 뱀도 겨울잠에서 깨어나 밖으로 나온다고 한다. 즉 삼진날은 모든 생명들이 삶을 되찾고 만물에 희망이 넘치는 봄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기도 하다. 또한 이날 흰 나비를 보면 그 해에 상복을 입을 일이 생기고, 노랑나비를 보면 복이 오고 호랑나비 보면 벼슬길이 열린다는 속설도 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님들은 수가 겹치는 날을 절기로 삼아 왔는데 1월 1일 설날, 3월 3일 삼진날, 5월 5일 단오, 7월 7일 칠석, 9월 9일 중양 등이 그것이다. 이 중 삼진날은 9월 중양절과 짝을 이루어 귀하게 여겼는데 요즘은 청명, 한식과 비슷한 시기에 있는 관계로 풍속이 혼숙되어 있기도 하다.

삼진날의 유래는 분명치 않으나 최남선의 <조선상식문답>에서는 신라시대 이래로 모셨다고 하니 고대로부터 내려 온 봄날을 기리는 전통의 연장으로 짐작할 뿐이다. 삼진날을 대표하는 풍속으로는 들에 나가 새로 돋은 풀을 밟으며 나물을 캐는 답청(踏青)놀이가 유명하며, 꽃을 즐기는 화류(花柳)놀이와 화전(花煎)놀이, 냇물에 겨우내 묵은 육신의 때를 씻어 내는 '불계(被袂)', 구불구불 구비진 물가에 술잔을 띄워 보내면서 술을 마시던 '유상곡수(流觴曲水)' 등이 있고, 나라에서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잔치를 베풀었던 기로연(耆老宴) 등을 들 수 있다.

이날 각 가정에서는 여러 가지 봄철 떡을 하여 먹는다. 흰떡을 해서 방울 모양으로 만들어 속에 팥을 넣고, 떡에다 다섯 가지 색깔을 들여, 다섯 개를 이어 구슬을 꿰어 만든다. 작은 것은 다섯 개씩이고, 큰 것은 세 개씩으로 하는데, 이것을 산떡(餠餅, 쫄면떡)이라고 한다. 또 찹쌀과 송기와 죽을 넣어서 떡을 하는데, 이것을 고리떡(環餅)이라고 한다. 그리고 부드러운 썩음을 따서 찹쌀가루에 섞어 찌서 떡을 만들어 먹으니 이것을 썩떡이라고 한다. 특히 썩떡은 중국 송사(宋

史)에 "고려에는 상사일(上巳日)의 썩떡을 제일 맛있는 음식으로 친다." 하였고, 동월(董越)의 '조선부(朝鮮賦)'에서는 "3월 3일에는 썩음을 따서 찹쌀가루에 섞어 찌서 떡을 만드는데, 이것을 썩떡이라 하였으며, 중국에는 없는 것"이라 하였다. 또한 이날은 찹쌀가루에 반죽을 하여 찹기름을 발라가면서 둥글게 지진 '화전(花煎)'을 먹었다고 한다. 또 녹두가루를 반죽하여 익혀서 가늘게 썰어 오미자(五味子) 물에 넣고, 또 꿀을 타고 잣을 넣은 '화면(花麵)'을 먹고, 더러는 진달래꽃을 따다가 녹두가루와 반죽하여 만들기도 하며, 붉은색으로 물을 들이고 꿀물로 만들기도 하는데, 이것을 '수면(水麵)'이라고 하여 제사에도 사용하기도 했다고 전한다.

불가에서는 예부터 민간에서 음력 삼월 삼일에 행해졌던 각종 민속에 더해, 번뇌를 없애고 생명을 존중하며 개인적인 희망을 비는 불교 의식이 행해져 종교의례로 자리 잡았다. 모든 생명이 다시 삶을 되찾는 계절의 의미에 맞게 삼진불공은 감로의 물로 생명의 근원으로 되돌리고자 하는 차 공양, 일체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뜻에서 다른 생명을 놓아주는 방생 그리고 생명의 안녕을 구하는 산신제로 이루어진다.

이 가운데 인간의 근본적인 번뇌인 탐(貪), 진(瞋), 치(癡)의 삼독(三毒)을 벗어나 계(戒), 정(定), 혜(慧)의 삼학(三學)을 수행하여 해탈을 얻고 불사(不死)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감로의 물을 상징하는 차 공양은 신라 경덕왕 때 총담사가 매년 중삼(重三)과 중구일(重九日)에 경주 남산 삼화령의 미륵부처님께 공양했던 기록이 보일 만큼 오래되었고 오늘의 불교 의례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또한 방생과 산신제도 생명존중의 의미를 담고 있다. 방생은 살아 있는 짐승을 놓아줌으로써 악업을 소멸하고 깨달음을 이루는 마음이 생겨 세간과 출세간의 공덕이 되는 의례이다. 산신제는 고구려에서 시작했으며 고려조에 이르러 불교와 습합되어 오악명산을 섬기는 팔관회로 이어져 진호국가(鎮護國家, 교법에 따라 재앙을 진압하여 나라를 보호하는 일)와 개인적인 기원을 바라는 의례로 정착되었다. 삼진날에 대한 유래 및 내용은 영산불교문화원 홈페이지(<http://yeongsan.or.kr>)에 좀 더 상세히 나와 있으니 관심있는 분들은 방문해 보시기를 권한다.

시주접수처 완공



봉원사 도량내에 새로운 기와불사 및 시주접수처가 마련되었습니다.

시주(施主)란 글자 그대로 '보시하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승려 개인이나 전체 승가를 자비심으로 조건 없이 물건을 베풀어 주는 일을 말합니다. 사서에는 불교가 전해진 삼국시대 이래로 수많은 시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국유사』에는 신라 경덕왕대 황룡사 종을 만드는데, 시주는 왕비였던 삼모부인(三毛夫人)이었습니다. 또 『고려사』에는 1099년 삼각산 승가굴에서 숙종이 재를 올리고, 차, 향, 수정, 염주, 은향완(銀香碗), 수로(手爐) 등을 시주했다는 등의 많은 기록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신도님들은 새로운 시주접수처에서 시주공덕을 쌓으시어 시련이 봄 눈처럼 사라지고 더 많은 이익과 결실이 있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피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

“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

“ 손을 자주 씻어 주세요 ”

“ 휴지나 손수건이 없다면 기침은 팔로 막아 주세요 ”

부처/님/전/생/이/야/기

본생경(자타카) 58

자타카(Jataka)는 부처님 전생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을 통해 알려졌고 그 후 구전되다가 문자로 기록되었으며 동서양으로 이어져 이슬람화와 아라비아안 나이트 그리고 우리나라 삼국사기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알려져 있다. 판소리 '별주부전'으로 발전한 토끼와 거북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다. 이 설화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

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인도를 비롯한 중국 등 동아시아에 전파된 것은 1세기부터 6세기로 보고 있다. 중국은 67년 촉법란이란 분에서부터 285년 촉법호라는 분의 생경(生經)번역까지 5차례에 걸쳐 700여편의 본생설화가 한역되어졌으며 한국에서는 본생경(本生經), 일본에서는 본생담(本生譚), 중국에서는 본생주(本生注) 등으로 소개되고 있다.

번뇌(煩惱)에 관한 전생 이야기

옛날 범여왕이 바라나시에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보살은 8억의 재산을 가지 어떤 바라문의 집에서 태어났다. 보살은 성년이 되자 득차시라에 가서 온갖 학예를 배우고 바라나시에 돌아와서 결혼했다. 양친이 죽은 뒤에 장례를 치르고 재물을 챙겼다. '이 보화는 여기 그대로 있으나 이것을 만든 사람들은 이제 다 죽었구나.'는 생각에 보살은 슬펐다. 보살은 오랫동안 가정생활을 했으나 그런 슬픈 마음을 버리지 못했다. 어느 날 보살은 많은 재산을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고 설산으로 들어갔다.

설산에서 보살은 초막을 짓고 땅에 떨어진 나무뿌리와 갖가지 과일을 먹으며 살아갔다. 보살은 오래지 않아 신통의 힘과 선정의 힘을 얻었다. 그러던 어느 날, 보살은 이런 생각을 했다.

"이제 사람 사는 마을에 가서 짜고 신 맛의 음식을 먹자. 그렇게 하면 내 몸도 튼튼해질 것이요, 또 그로써 운동도 될 것이다. 그리고 나같이 덕이 높은 사람에게 보시하고 예배하는 이는 천상이나 인간세계에 날 수 있을 것이다." 보살은 곧 설산에서 내려와 바라나시로 갔다. 해 질 녘이 되어 잘 곳을 찾다가 왕의 동산을 보게 되었다. "이곳은 혼자서 좌선하기에 적당한 곳이다. 여기서 묵자." 보살은 왕의 동산에 있는 한 나무 밑에 앉아 선정의 즐거움을 맛보면서 그 밤을 보냈다.

이튿날, 보살은 머리를 정돈하고 영양의 가죽옷을 입고 바리를 든 채 위의(威儀)를 갖추고 탁발을 하러 성내에 돌아다녔다. 그러다가 왕궁의 문 앞에 이르렀다. 높은 누대 위를 거닐던 왕은 보살을 보고 그 위의에 감심했다. 만일 세상에 안정의 길이 있다면 저 사람의 몸에 다 갖추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왕은 대신에게 명하여 보살을 데려오라 했다.

"스승님, 대왕께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대신이 보살의 바리를 받아 들고 말했다. "큰 공덕주(功德主) 님, 대왕께서는 나를 모르십니다." "그러면 스승님, 제가 다시 대왕께 다녀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십시오."

대신은 왕에게 가서 보살이 한 말을 전했다. 그러자 왕이 직접 창문에서 손을 내밀고 "스승님, 어서 오십시오." 하고 말했다. 보살은 대신에게 바리를 건네주고 높은 누대에 올라갔다. 왕은 보살에게 예배하고 옥좌에 앉힌 뒤 자기를 위해 만든 죽과 밥을 그에게 공양했다. 보살이 식사를 다 하자 왕이 물었다. "스승님, 당신은 어디에 계시며 어디서 오셨습니까?" "대왕님, 저는 설산 지방에 사는 사람으로서 설산에서 왔습니다." "무엇 하러 오셨습니까?" "대왕님, 큰비가 올 때는 일정한

거주지를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의 동산에 계십시오. 스승님께서 동산에 계시는 동안 저는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선업(善業)을 닦겠습니다."

왕은 보살과 함께 동산으로 가서 초막을 지었다.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모든 도구를 준비한 뒤에 "스승님, 마음 편히 계십시오." 하고 보살을 동산지기에게 맡겼다.

보살은 20여 년 동안 거기에 머물렀다. 그런데 국경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왕은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 왕궁을 떠나지 않을 수 없었다. "왕비여, 내가 없는 동안 그대가 스승님을 잘 보살펴 주길 바라오." 왕은 왕비에게 보살을 부탁했다. "대왕님, 그분의 일이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분에 대한 봉사는 저의 의무입니다. 당신은 조금도 걱정하지 마시고 떠나십시오." 왕이 변방으로 떠나자 왕비는 이전처럼 보살을 극진히 보살폈다. 왕이 떠난 뒤에도 보살이 왕궁으로 가서 식사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그런 어느 날이었다. 보살이 식사하려 나 타날 시간쯤 되어 왕비는 목욕과 화장을 하고 낮은 침대를 준비했다. 그리고 보살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면서 향을 피우고 속옷만 걸친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보살이 바리를 들고 왕비의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침대에 누워 있는 왕비의 모습이 보여 주춤거렸다. 왕비는 보살의 가죽옷 소리를 듣고 급히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런데 그때 왕비가 입고 있던 향의(香衣)가 발밑으로 툭 떨어졌다. 보살은 그만 애욕을 이기지 못하고 왕비의 그 그윽한 곳을 냇을 잃고 바라보았다. 선정의 힘으로 애욕을 억제하고 있던 보살에게 마치 상자 속에 든 독사가 머리를 치켜들 듯 번뇌가 일었다. 보살은 칼에 베이는 고무나무와 같은 고통에 빠졌다. 보살은 곧 선정의 힘을 잃고 여섯 감각이 더러워져 날개 잃은 까마귀 같은 신체가 되었다. 보살은 왕비가 바리에 담아준 음식을 들고 계단을 내려가 동산으로 향했다. 예전 같으면 신통으로 날아서 갔으나 이제는 날 수도 없었다.

보살은 동산에 돌아가서도 식사는 하지 않고 줄곧 왕비 생각만 했다. 왕비의 손은 이렇게 고왔고, 그 발과 허리는 이러했으며, 그 다리 모양은 이러이러했다고 잠꼬대를 하면서 이레 동안 자리에 누워 있었다. 바리에 담긴 음식은 썩어 파리가 가득 달려들었다.

국경 지방의 반란을 진압하고 돌아온 왕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동산의 도원이 황폐해져 있었다. 왕은 보살이 묵고 있는 초막의 문을 열어 보았다. 보살은 초막 한가운데 누워 있었다. 왕은

그가 어디 아픈 것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불러 썩은 음식을 버리게 하고 초막을 청소한 뒤에 보살에게 물었다. "스승님, 어디가 편찮으십니까?" 보살이 대답했다. "대왕님, 나는 찢렸습니다." 왕은 변방에 침입한 반란군이 몰래 왕궁에 침입하여 보살을 찢른 것으로 생각하고 보살의 몸을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스승님, 어디를 찢렸습니까?" "대왕님, 나는 다른 사람에게 찢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가슴을 찢었습니다." 보살은 그렇게 말한 후 자리에서 일어나 다음 계승(偈頌)을 읊었다.

탐욕에 찌르고
상상에 단련된 생각 때문에
아름답게 장식한 여자 때문이 아니요,
화살 만든 이의 그 화살에 맞은 것도 아니다.

깃불에 꽃힌 진주 때문이 아니요,
공작의 깃으로 꾸며진 것 때문도 아니다.
나는 내 온몸을 다 태우는
그것 때문에 내 가슴을 찢렸다.

나는 내 몸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그 상처를 보지 못한다.
그러나 마음의 진실을 잃은 그만큼
나는 스스로 내 고통을 불러왔네.

보살은 이렇게 계승을 읊은 뒤 왕을 초막 밖으로 내보냈다. 그리고 관념의 예비 수행을

행하여 잃었던 선정을 다시 얻고 왕에게 설산 지방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왕은 보살을 붙들었다. 그러나 보살은 왕의 말을 듣지 않았다. "대왕님, 내가 여기 살면 이런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나는 이제 여기 머무를 수 없습니다." 보살은 왕의 만류를 뿌리치고 공중을 날아 다시 설산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거기서 평생을 살았다.

※ 계승(偈頌) : 부처님의 공덕이나 가르침을 찬탄하는 노래. 외우기 쉽게 계구(偈句)로 지었다. '계승'의 '계(偈)'는 본음이 '계'일 뿐만 아니라 현실 발음도 '게'이므로 '계'로 적는 다. 따라서 '계승(偈頌)'은 '계승'으로 적지 않고 '게승'으로 적는다.

● 사보 후원금 ●

석창호	5만원(환우 스님)
임용빈	2만원(환우 스님)
서정주	10만원(고산 스님)
심극택	10만원(고산 스님)
박숙자(칠성법회 회장)	10만원(지암 스님)

성원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음식물 쓰레기 걱정 싹~”

음식물 바이오 소멸기 및 살균수 생성기

업소용 음식물소멸기 가정용 음식물소멸기 살균수 생성기 싹수

- 캐나다 밴쿠버 세계박람회 최우수 상품 선정
- 미래창조과학부 “녹색기술 인증기업” 선정
- 이노비즈 기업 선정, 정부 광고지원 대상 업체 선정

(주) 조은생활 문의 : 김순복(010-3182-3445)

| 재미있는 불교전설- 오대산 상원사

세조와 고양이



상원사

“마마, 정신 차리십시오.”

잠자리에 든 세조는 악몽을 꾸는지 온몸이 땀에 흥건히 젖은 채 신음을 내고 있었다. 옆에 누웠던 왕비가 잠결에 임금의 신음을 듣고 일어나 정신 차릴 것을 권하니 잠에서 깨어난 세조는 크게 한숨을 내쉬었다.

“마마, 신열이 있사옵나. 옥체 미령하옵신지요?”

세조는 대답 대신 혼자 입속말을 했다. “음, 업이로구나, 업이야.”

“마마, 무슨 일이에요? 혹시 나쁜 꿈이라도 꾸셨는지요.”

“중전, 심기가 몹시 불편하구려. 방금 꿈에 현덕왕후(단종의 모친·세조의 형수) 혼백이 나타나 내 몸에 침을 뱉지 않았소.”

“원, 저런...”

꿈 이야기를 하며 다시 잠자리에 들었으나 세조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어린 조카 단종을 업어주던 모습이며, 생각하기조차 꺼려지는 기억들이 자꾸만 뇌리를 맴돌았다.

이튿날 아침, 이게 웬일인가. 꿈에 현덕

왕후가 뱉은 침 자리마다 종기가 돌아오고 있다니, 세조는 아연실색했다. 종기는 차츰 온몸으로 퍼지더니 고름이 나는 등 점점 악화되었다. 명의와 신약이 모두 효험이 없었다.

임금은 중전에게 말했다. “백약이 무효이니 내 아무래도 대찰을 찾아 부처님께 기도를 올려야겠소.”

“그렇게 하시지요. 문수도량인 오대산 상원사가 기도처로는 적합할 듯하옵나니.”

왕은 오대산으로 발길을 옮겼다. 월정사에서 참배를 마치고 상원사로 가던 중 장엄한 산세와 맑은 계곡물 등 절경에 취한 세조는 불현듯 산간 벽수(碧水)에 목욕을 하고 싶었다.

자신의 추한 모습을 신하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 늘 어의를 풀지 않았던 세조는 그날도 주위를 물린 채 혼자 계곡물에 몸을 담그고 목욕을 즐겼다.

그때였다. 숲속에서 놀고 있는 조그마한 한 동자승이 세조의 눈에 띄었다.

“이리 와서 내 등 좀 밀어주지 않으려?” 동자승이 내려와 등을 다 밀자 임금은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단단히 부탁의 말을 일렀다.

“그대는 어디 가서든지 임금의 옥체를 씻었다고 말하지 말라.”

“대왕도 어디 가서 문수보살을 친견했다고 말하지 마시오.”

이렇게 응수한 동자는 홀연히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왕은 놀라 주위를 살피다 자신의 몸을 보니 몸의 종기가 씻은 듯이 나은 것을 알게 됐다. 왕은 크게 감격했다. 환궁하자마자 화공을 불러 자신이 본 문수동자상을 그리게 했다. 기억력을 더듬어 몇 번의 교정을 거친 끝에 실제와 비슷한 동자상이 완성되자 상원사에 봉안토록 했다. 현재 상원사에는 문수동자 화상(畫像)은 없고, 얼마 전 다량의 국보가 쏟아져 나온 목각 문수동자상이 모셔져 있다. 또 세조가 문수동자상을 친견했던 월정사에서 상원사로 갈라지는 큰 길목 10km 지점은 임금이 그곳 나무에 의관을 걸었다 하여 「갓걸이」 또는 「관대걸이」라고 부른다.

병을 고친 이듬해 봄, 세조는 다시 그 이적의 성지를 찾았다. 상원사에 도착한 왕은 곧바로 법당으로 들어갔다.

막 예불을 올리는데 어디선가 별안간 고양이 한 마리가 나타나 세조의 곤룡포 자락을 물고 자꾸 앞으로 못 가게 잡아당기는 것이 아닌가.

이상한 예감이 든 왕은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병사들을 풀어 법당 안팎을 살살이 뒤지게 했다. 아니나 다를까, 불상을 모신 탁자 밑에 세 명의 자객이 세조를 시해하려고 시퍼런 칼을 들고 숨어 있었다. 그들을 끌어내 참하는 동안 고양이는 벌써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

하마터면 죽을 목숨을 구해준 고양이를 위해 세조는 강릉에서 가장 기름진 논 5백 섬지기를 상원사에 내렸다. 그리고는 매년 고양이를 위해 제사를 지내주도록 명했다. 이때부터 절에는 묘답 또는 묘전이란 명칭이 생겼다. 즉 고양이를 논, 또는

고양이를 밭이란 뜻. 궁으로 돌아온 세조는 서울 근교의 여러 사찰에 묘전을 설치하여 고양이를 키웠고, 왕명으로 전국에 고양이를 잡아 죽이는 일이 없도록 했다.

지금도 상원사에 가면 마치 이 전설을 입증하는 듯 문수동자상이 모셔진 청량선원 입구 계단의 좌우에는 돌로 조각한 고양이 석상이 서 있다.

속설에 의하면 「공양미」란 말도 고양이를 위한 쌀이란 말이 변하여 생겼다는 일설도 있다.

고양이 사건이 있는 지 얼마 후 세조는 다시 상원사를 찾았다.

자신에게 영험을 베풀어준 도량을 중창하여 성지로서 그 뜻을 오래오래 기리기 위해서였다.

대중 스님들과 자리를 같이한 왕은 상원사 중수를 의논하고 있었다. 그때 마침 공양시간을 알리는 목탁이 울렸다.

소탈한 세조는 스님들과 둘러앉아 공양 준비를 했다.

“마마, 자리를 옮기시지요.”

“아니오. 대중 스님들과 함께 공양하는 것이 과언은 오히려 흠족하오.”

그때 맨 말석에 앉아 있던 어린 사미승이 발우를 들더니, 세조의 면전을 향해 불쑥 말을 던졌다.

“이거사, 공양하시오.”

놀란 대중은 모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몸 둘 바를 몰랐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인가. 정작 놀라야 할 세조는 껄껄 웃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과연 도인이 될 그릇이로다.”

왕은 그 사미승에게 3품의 직을 내렸다. 그리고는 그 표시로서 친히 전흥대(붉은 천을 감은 허리띠)를 하사하였다. 아마 세조는 지난날 자신의 병을 고쳐준 문수동자를 연상했던 모양이다. 그 후 세간에서는 어린아이들이 귀하게 되라는 징표로 붉은 허리를 졸라매 주는 풍속이 생겼다는 한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상조 서비스 “유성라이프”

- 차별화된 100% 후불제 시스템

- ▶ 앰블런스 관내제공
- ▶ 장례1급 지도사 파견 및 도우미 파견
- ▶ 고급오동관 등 최고급 고인용품 제공
- ▶ 남여 상복 등 의전용품 제공
- ▶ 리무진 버스 45인승 서비스(화장장 왕복 제공)
- ▶ 운학원통 유골함 제공
- ▶ 공원묘지, 납골당, 장례식장, 이장, 개장 등 알선 서비스

앞으로 좀 더 많은 여러분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이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두루 가내에 평온과 화목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문의 : 1833-2545

숲속 한방랜드 24시 숲가마 사우나

도심에서 즐기는 숲가마 찜질 여행
당신의 생활 속 편안한 휴식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원동 51 (시내버스 7024번 종점)
전화 : 02)365-2700~1

조상의 풍류와 낭만을 따라서...정자(亭子) 기행 59



석호정(石湖亭)

난곡(蘭谷)이 강학(講學)에 힘을 쓴 선비의 글 읽는 소리가 들릴듯한 정자

녹차로 유명한 전라남도 보성군의 겸백면 도안리 622에 위치하고 있다.

정자는 원래 난곡(蘭谷) 정길(鄭佶 1566 명종 21~1619 광해군 11)의 거소였다고 한다. 그래서 정문에는 난곡유장(蘭谷遺庄)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유장(遺庄)은 어떤 분이 남긴 행적을 말한다. 이곳을 정명 석호정이라고 부른 것은 1920년 경으로, 그 이전에는 난곡정(蘭谷亭) 또는 난곡정사(蘭谷精舍)로 불리웠다.

정길(鄭佶)은 조선 중기의 유학(幼學)자로 본관은 하동(河東)으로 자는 자정(子正), 호는 난곡(蘭谷)이다. 좌찬성 문절공 14대 손으로 보성의 대표적인 인물로 죽천(竹川) 박광전(朴光前 1526~1597)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는데, 어려서부터 재주가 뛰어나

스승으로부터 총애를 받았다. 1592년 임진왜란 때 박광전을 추종, 의병장 활동을 했다. 여러 곳에서 적과 싸워 전공을 세웠고, 전쟁이 끝난 뒤에는 여러 뜻 있는 선비들과 함께 경전 수백 부를 간행하여 사습(士習)의 진작에 힘썼다고 한다.

1923년 중수한 이래로 비교적 후손들에 의해 관리가 잘 된 탓에 건물의 상태는 매우 양호하다. 고색창연함을 느낄 수 있는 비교적 오래된 정자이다. 정자의 형태는 단층으로 지어진 팔작지붕의 평기와 건물로, 정면은 3칸, 측면은 2칸으로 재실 형태로 지어졌으며 정자 주변으로 담이 둘러져 있다.

정자 내에는 독특한 필체의 정자명의 현판과 송운회의 석호정기(石湖亭記), 석호정십경, 난곡자설(蘭谷自說), 난곡설(蘭谷說) 등이 현액되어 있다.

송운회 필체로 쓴 정호(程顥) 정음령장시승(보문令張侍丞) 시를 소개한다.

仲春時節百花明 (중춘시절백화명)
何必繁絃列管聲 (하필민현열관성)
借問近郊行樂地 (차문근교행락지)
潢溪山水照人清 (황계산수조인정)

화창한 봄날 온갖 꽃이 만발하였는데
하필 거문고와 피리소리를 들을까
가까운 곳에 놀만한 곳을 묻는데
황계(潢溪)의 산수가 사람을 맑게 비추네

〈글/사진 선암 석인철〉



석호정-난곡유정



석호정현판



석호정십경

⊗ 봉원사 주차장 이용안내 ⊗

봉원사를 찾아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봉원사를 방문하시는 신도분들께서는 중무소나 각 화주스님께 문의하시어 주차증을 발급받으신 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증이 없는 경우에는 요금(30분 무료, 이후 10분당 5백원)이 발생합니다. 주차장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 일반요금 : 기본 30분 무료, 이후 10분당 500원
- 무료주차 : 주차증 제시
- 문의 : 중무소(02-392-300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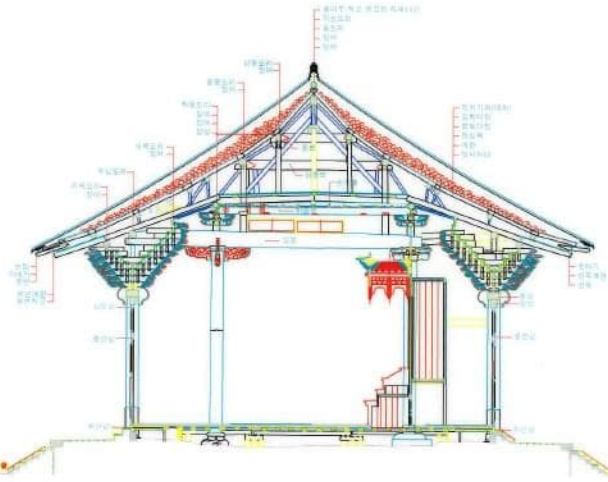
한국불교 태고종 봉원사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관한 건

봉원사는 순수 기부금에 한해서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삼천불전(三千佛殿) 보수·정비 불사

삼천불전 보수·정비 불사 계획도



모연부재목		단위:만원						
부재명	추녀	사래	도리	장여	서까래	개판	부연	기와(대와)
모연금	500	200	100	50	20	20	10	2



삼천불전 전경



시삽식

부처님 말씀에 '불사(佛事)는 복전(福田)이라', 모든 중생에게 복에 종자를 심는 큰 터전이라 하셨습니다. 천년고찰 봉원사에서는 삼천불전의 보수 및 정비를 위한 불사에 온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크고 작은 많은 장애를 모두 극복하여 보수·정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불교 전통문화 보전과 수행환경 개선을 위한 불사를 봉행하고자 합니다. 큰 공덕을 짓는 의미있는 불사에 많은 신도님들 동참하시어 소중한 인연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종무소(02-392-3007~8) 및 각 화주스님



한국불교 태고종 봉원사

☞ 자원봉사단 단원모집 안내 ☞

귀의 삼보하옵고,

봉원사 도량내 기와불사와 시주접수처 업무 및 관리를 위한 자원봉사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아울러 봉원사에서는 정기적으로 군부대, 소년원 등 사회 각지에

부처님의 자비가 내려질 수 있도록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종교를 초월하여 손길이 필요한 곳에 희망을 전파하는 활동에 함께 참여하거나

도움을 주실 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문의 : 종무소(02-392-3007~8)

한국불교 태고종 봉원사